

보도일시 (인터넷) 배포 즉시
(지면) 배포 즉시

배포 2026. 5. 21.(목)

사천진항, 소형선부두 계류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

-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부두 계류시설 확충사업 차질없이 추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21년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수립된 사천진항 소형선부두 정비사업을 '26년 5월 설계완료하여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천진항은 근래 대형화되고 있는 어선 및 귀어민들의 증가로 계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계류시설 확충을 요구받아왔다.

이에 따라 동해해수청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이용현황,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사천진항 내 남측호안 전면 잔교식 부두 130m 신설 및 박지준설 2,940m³을 설계완료하고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금번 사업으로 사천진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어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책임자	과 장	김연수 (033-520-6250)
		담당자	주무관	전종열 (033-520-6262)
		담 당	주무관	윤예지 (033-520-6254)